

완판 판소리계 소설에 형상화 된 왕도정치의 이상(理想)과 민중의 염원

정보배*

|| 차례 ||

- I. 머리말
 - 1. 문제제기
 - 2. 연구 대상과 방법
- II. 맹자 왕도정치론의 개요
 - 1. 패도의 실상
 - 2. 군주의 자격
 - 3. 왕도 실현과 이상향의 완성
- III. 작품 속 왕도정치의 형상화 양상
 - 1. 군자의 풍모를 지닌 서민 주인공의 등장
 - 2. 본성 발현을 통한 패도의 극복
 - 3. 서민의 힘으로 실현한 왕도의 이상(理想)
 - 4. 서민의 각성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염원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완판 판소리계 소설과 맹자가 주장한 ‘왕도정치론’의 밀접한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에 표출된 서민의 문화적 상승 지향 욕구, 비슷한 시기에 방각본으로 발행된 많은 유학서적, 국내의 본격적인 주자학의 수용 정도와 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민들은 유학의 본질적 내용에 호응하면서, 양반 못지않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 예상된다.

* 부산남고등학교 교사

조선후기 발간된 유학서의 내용 중에서도, 맹자의 왕도정치론이 표방하는 민본주의 정신은 특히 당대 서민의 요구와 밀접하게 닿아있다. 맹자는 인, 의, 예, 지의 본성을 잘 보존한 군자가 지도자가 되어, 백성을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맹자에 의하면 군, 신, 민(君臣民)중 민이 가장 우선이며, 민심은 천심을 대변한다. 따라서 백성을 전쟁에 강제 동원하여 영토를 넓히는 ‘패도’정치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생업을 보장하며 교화하는 것이 진정한 왕도정치의 길이다.

완판 판소리계 소설은 맹자의 왕도정치론을 비교적 완벽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신분은 미천하지만 군자다운 인물이 주인공이며, 이들이 패도를 이겨내고 왕도를 실현하거나 증명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민중들은 서민 주인공이 등장하여 왕도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활약하는 판소리계 소설을 창작·향유하며 이와 같은 왕도정치가 실현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대중문화의 소산인 완판 판소리계 소설을 맹자의 왕도정치론과 연결 지어 봄으로써, 당대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견해와 바람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판소리계 소설, 완판 방각본, 맹자, 왕도정치, 고소설 독자

I. 머리말

1. 문제제기

임병양란 이후 일어난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서민 의식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¹⁾ 부유해진 일부 서민들은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구입,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화적 상승 지향 욕구를 가지고 유교서적을 구입하여 후손들을 공부시키기도 하였다.²⁾ 주

1)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 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p.195-211.

2)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p.31.

자학의 발달 또한 조선 후기에 퇴계와 율곡의 학문을 기점으로 심화,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³⁾유학과 주자학이 조선 민중의 삶에 침투하게 된 것 또한 조선후기로 봄이 옳다.⁴⁾

본고는 조선 후기에 서민층을 중심으로 향유·창작되기 시작하면서 전 계층으로 인기가 확산된 판소리계 소설 또한 이러한 유학의 심화, 발전상과 분명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판소리계 소설 방각본이 인기를 끌기 전 유학서들이 먼저 간행되기 시작하였고,⁵⁾ 이후 소설과 함께 활발히 간행되었던 교과서용 도서 또한 유학의 내용과 관련된 서적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관련 연구들은 판소리계 소설의 표면적 주제가 충, 효, 열을 표출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판소리의 공급자들이 양반 좌상객을 의식한 소산이라 보았다. 유교의 윤리를 신봉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이를 이용하여 양반 사회를 풍자,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⁶⁾ 그러나 당대 서

3) 윤사순은 ‘사단칠정설’ 같은 전통적 윤리설의 이기론적 해석이 학자들의 논변 속에서 무르익는데,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은 이황과 이이의 학파를 각각 생성해내는 등 20세기까지 이어졌다고 평했다(윤사순, 『근본원리로 살핀 한국의 유학사상』, 두양사, 2016, p.50, pp.139-151).

4) 강명관은 『주자대전』의 중종 38년 간행과 선조 6년 지식인들에게 보급되었음을 들어 조선사회가 임병양란 이후에야 “주자학이 구상한 유교국가, 즉 양반사회가 본격적인 완성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고 평하며, <춘향전>과 <심청전> 또한 “민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침투한 유가의 윤리의식이 초점”이 된 작품이라 판단하였다(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pp.112-176).

5) 부길만은 방각본 출판 시기를 제1기(실용성 강조, 1576~1724년), 제2기(유교적 교양과 아동학습 강조, 1725~1842), 제3기(오락기능 강화와 실용성 확대, 1843~1910)로 나누었다(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 한국 현대 출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출판미디어, 2003, p.35, p.62).

6) 박희병은 춘향을 “열이라는 관념을 이용해…인간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인물”로, <토끼전>은 “충의 기만성에 대한 폭로”라 하였다. <홍부전>은 “형제간의 우애라는…인륜성이 실제의 현실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며 <심청전>만이 “효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과 회의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효는 끝내 긍정된

민의 문화적 상승 지향 욕구, 국내의 본격적인 주자학의 수용 정도와 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민들은 공맹사상의 본질적 내용인 인본주의, 민본정치 사상에 열렬히 호응하였을 것이라 본다. 당대 방각소설의 창작⁷⁾과 향유에 있어서도 유교윤리를 지배층과 동일시하여 비판하기 보다는, 유학의 민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조선후기 민중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방각본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게 되었으며, 방각본 유학서의 발간 횟수는 소설을 상회하거나 그에 육박한다.⁸⁾ 소설 발간 이전 혹은 같은 시기에 광범위하게 발간된 유학서의 요구 집단과 방각본 소설 독자층 또한 교집합을 이루었을 것이며 그 영역이 꽤 넓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소설을 읽었던 독자층 또한 부농층, 중인, 몰락양반 등⁹⁾으로서 급부상한 유학서적의 발간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류탁일이 조사한 『한국책판목록총람』(1979)의 전주지방 간행 비방각본의 종류와 간행 횟수를 살펴보면 『논어』, 『대학』, 『중용』이 2회 간행된 데 비해 『맹자』는 3회의 간행이 이루어져 주목된다. 이는 언해(諺解)를 포함한 횟수로, 언해가 있다는 것은 이 역시 결국 방각본의 성격이 짙은 것이라

다.” 고 평하였다.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pp.101-103.

7) 소설이 천시되던 시기 작자 미상의 소설 창작이 다량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당대 지배권력에서 소외된 중인이하 서민 혹은 몰락양반일 것으로 추정된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1, pp.199-200).

8) 부길만이 조사한 방각본 출판 2기와 3기에서 완판의 유학서와 유학서 관련 아동용 교과서, 유학관련 의례 관련 방각본은 완판의 소설 수를 상회한다(부길만, 앞의 책, pp.57-60, pp.83-86).

9) 부길만은 방각본 출판 2기는 영·정조가 승문정책으로 문예부흥을 시도했던 시기로, 사대부 규수, 중인, 서출, 서리 등이 독자층으로 부상하게 되었을 것이라 하였다(부길만, 위의 책, p.35, p.62).

볼 수 있다.¹⁰⁾ 또한 이들 중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이 『맹자집주대전』으로, 1807년에 발행되었다.¹¹⁾ 간행연도 또한 가장 앞서고 있어 『맹자』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맹자』는 ‘왕도정치론’뿐 아니라 ‘역성(易姓)혁명’을 정당화한 것으로도 특히 유명하다. 이는 지배권력에서 소외된 몰락 양반층과 중인 이하 계층과 민중의 호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당대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왕도정치론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여, 완판 판소리계 소설의 창작과 향유에 있어 유학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판소리계 소설 방각본 중에서도 완판으로 간행된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71장본 <심청전>, 21장본 <퇴별가>를 택하고자 한다.¹²⁾ 서울에서 발행된 경판은 독서물로 발전하면서 문어적 표현 및 빠른 전개 중심으로 분량을 축약하며 개작된 반면, 완판은 구어적 표현 중심으로 판소리 본연의 장면확장적 특성을 소설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 주제의식 또한 경판에 비해 친서민적이기 때문이다.¹³⁾

같은 작품이라도 경판과 완판으로 각각 간행된 작품은 내용상 큰 차이

10) 류탁일, 앞의 책, p.24.

11) 사서삼경의 언해본 방각본들은 모두 전주의 하경룡장판에서 간행되었는데, 1810년 사서삼경이 전부 간행되었으며, 『맹자』만 풍패에서 3년 전 간행되었다(부길만, 위의 책, p.62).

12) 판소리 5마당 중 방각본 <홍부전>은 경판만이 존재한다. 완판 <화용도>는 외국 작품을 연원으로 한다. 두 작품 또한 본고의 주제와 일부 연관성이 있으나,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한다.

13) 김현주, 「경판과 완판의 거리 : 판소리계 소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적 해석」, 『국어국문학』 제116집, 국어국문학회, 1996, pp.157-184.

를 보인다. 류탁일은 완판소설의 중심지였던 전주의 농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된 수익을 가졌을 것임을 근거로 들어, 이들이 소설을 사서 읽는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았을 것임을 추측하였다.¹⁴⁾ 김현주는 19세기 서민문화를 주도했던 위항인들은 대체로 양반문화를 지향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서울·경기지방과는 달리 전주지방은 농업과 상업이 함께 발달하였고, 부농층과 중산층이 문화 향유 계층으로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¹⁵⁾ 정병설 또한 경관과 완판소설의 차이가 지역성에서 연유했다고 보는 시각이 현재 우리 학계의 대표 의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¹⁶⁾ 완판 방각본 소설은 양반 위주의 질서에 대한 비판적 측면과 함께, 신분 질서에 눌러 온 서민들의 정서 해소 측면이 강했을 것이다.

당대 출판기술과 문화 향유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도 전주지역 독자들은 한층 심화되고, 차별화된 심미적 성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역에서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종합예술대회인 전주대사습¹⁷⁾은 판소리의 중심지를 호남으로 굳히는 데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목 중 판소리는 밤새 불을 밝히고 공연될 정도로 가장 인기가 있었다.¹⁸⁾ 두 편 중 청중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쪽이 이기는 방식이므

14) 전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작농과 임금노동인구가 월등히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주들의 소작형태가 고정제인 정조(定租)여서, 생산량의 반을 지불해야 하는 타조(打租)나 그해 작황에 따라 결정되는 집조(執租)에 비해 수입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 보았다(류탁일, 앞의 책, p.33).

15) 김현주, 앞의 논문, pp.157-184.

16) 정병설, 앞의 책, p.257.

17) 이의 연원은 조선 숙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말 중단되었다가 1975년부터 매해 이어오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http://www.jjds.or.kr/01company/01history.php?&pc=0>)의 기록에 따르면, 본격적인 시작은 전주에 재인청이 설치된 영조 8년(1733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유영대, 『전주대사습』, 『비교민속학』 제13호, 비교민속학회, 1996, pp.272-274).

18) 류탁일, 앞의 책, p.36.

로, 자연 서민들이 청중이 되었을 것이다.¹⁹⁾ 판소리의 영향력은 방각본 판소리계 소설로의 인기로 이어졌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전주 감영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갖추어 진 방각본 출판 여건과 축적된 기술, 풍부한 판재와 한지의 재료, 저렴하게 고용 가능한 각수와 이를 공급·판매하기 좋은 커다란 장시 등을 갖춘 곳이 전주였다.²⁰⁾ 책을 출판할 외적 요건과 판소리의 심화, 발전이 이루어진 이곳은, 완판 판소리계 소설이 독자적 성격과 위상으로 발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다.

본고는 완판 판소리계 소설에 맹자의 왕도정치론이 적극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므로, 당시 전주 지역 중인 이하 계층이 『맹자』를 비롯한 사서를 어느 정도 읽고 향유했을지에 대한 논거도 필요하다.

조선왕조의 기틀을 닦은 정도전은 젊은 시절 『맹자』를 열렬히 탐독하였다.²¹⁾ 임금이 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민심이 등을 돌리고 천명이 떠난다는 역성혁명의 논리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전 정치 철학의 대전제다.²²⁾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맹자』는 이후로도 꾸준히 주요 사서(四書)로 존송되었다.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유학서와 이에 대한 주희의 주석서를 관무역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이를 꾸준히 인쇄, 보급하고자 노력했다.²³⁾ 임진왜란 이후 전적의 소실이 어마

19) “이효산과 김원배의 증언에 의하면, 전주대사습은 경연대회의 성격은 아니고 서민 중심의 감상회였던 것 같다. 그러나 영문(營門)과 본부(本府)의 돌로 나누어서…전속 광대를 내세우고는 청중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인 형태로 미루어…경연의 성격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유영대, 앞의 논문, p.273).

20) 류탁일, 위의 책, pp.16-21.

21) 삼봉집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대에 부친상과 모친상을 연이어 겪게 되어 영주에서 시묘살이를 할 때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를 루에 고작 반 장 내지 한 장을 읽을 정도로 정독했다고 한다(김용현, 『조선성리학, 지식권력의 탄생』, 프로네시스, 2010, p.24).

22) 김용현, 위의 책, p.29.

어마하여, 선조를 비롯한 이후의 왕들은 다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양의 유학서를 간행,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²⁴⁾ 언해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조선에서의 성리학의 토착화라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관주도 간행에서 방각본 간행으로 이행되기 시작했으며, 전주지역은 19세기에 방각본으로만 간행되는 특징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²⁵⁾ 전라지역에서 판소리계 소설이 한창 부흥의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유학서들 또한 방각본으로 활발하게 간행되었던 사실은, 방각본 독자의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 유학서의 영향력을 저평가할 수 없게 하는 지점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전주 지역에는 방각본을 간행했던 주요 서포는 다가서포, 서계서포, 완흥서포, 칠서방, 양책방이다.²⁶⁾ 그중 칠서방은 같은 시기에 다른 성격의 서적들을 독자적으로 활발히 출간했다.²⁷⁾ 소설은 한문본 구운몽 뿐이며, 대다수가 사서(四書)였던 것이다. 칠서방은 게다가 서울의 신구서림과도 계약을 맺어 서울에 판로를 열 정도로²⁸⁾ 방각본 사업에 관심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칠서방의 방각본 발간 사업은 이 지역에 있었던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발전해 간 것이다. 이 역시 당시 이 지역에 그러한 민간의 수요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이 시기는 판소리계

23) 안현주, 「조선시대 사서 판본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pp.21-22.

24) 안현주, 위의 논문, pp.30-32.

25) 전라지역은 사서간행처 6곳 중 4곳이 방각본 간행처였으나, 경상지역은 5곳 중 1곳, 경기지역은 10곳 중 3곳이 방각본 간행처이다. 전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서간행을 방각본 간행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19세기부터는 관각본 사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안현주, 위의 논문, pp.157-162.

26) 류탁일, 앞의 책, pp.45-63.

27) “칠서방은 칠서 간행을 주로 하고 그에 부응하는 서적들을 출판하여 소위 양반취향의 성향을 가졌던 출판소다.”(류탁일, 위의 책, p.57).

28) “전주에서 직매하는 서점인 창남서관을 운영하였고, 나아가서 서울 지방의 유명 서점인 신구서림, 진동서관, 동미서시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은 지방출판문화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다.”(류탁일, 위의 책, p.59).

소설이 판로를 개척하여 인기를 얻던 시기와 겹치거나 혹은 선행한다. 이는 전주에서 판소리계 소설 독자와, 방각본 사서의 독자들이 전혀 무관한 그룹이 아니었을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서민과 그 자제들은 높은 수준의 경서 해독은 아닐 지라도, 서당에서 배우거나 개인적으로 스승을 들며 배우면서 『맹자』의 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 본다.²⁹⁾ 봉당 정치와 삼정의 문란, 외척 세력의 장기 집권으로 혼란스러운 정치상을 보며 『맹자』는 당대 민중의 의식을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소설은 민란의 불씨가 된 적도 있었던 만큼, 판소리계 소설에 형상화 된 맹자의 사상은 조선 후기 서민 의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II장에서 『맹자』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드러나는 왕도정치론을 '당대 패도정치의 실상, 왕도를 실행할 군주의 자격, 왕도 실현의 방법과 이상향'의 순서로써 체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II장에서 살펴본 맹자의 왕도정치론의 3단계를 작품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본고의 대상이 된 세 작품의 공통 줄거리를 분석하여 완판 판소리계 소설의 주요 세 작품이 맹자의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당대 민중의 염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29) 조선말기 상황을 반영하는 1911년 조사에서 서당은 전국에 1만 6540개, 1920년에는 2만 5602개가 있었다. 고을 당 30여개로 추정하며 평민과 천민의 자제들도 교육을 받아 문자 해독이 가능했으리라 보인다. 양반과 평·천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기금을 마련해 학계, 서당계를 조직하여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조선은 당대의 중국, 일본에 비해 대중의 교육열이 높은 편으로 본다(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1』, 역사비평사, 1996, pp.351-356).

II. 맹자 왕도정치론의 개요

맹자는 공자가 주장한 공동체적 질서 회복의 필요성, 인간 본성에 대한 궁정 등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유명한 것이 ‘왕도정치’와 ‘역성혁명’이다. 그는 민(民)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역설하였으며, ‘인의’를 보존하고 발현한 자만이 이러한 민을 다스릴 군주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 만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민이 나서서 이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역성혁명’의 요지이다. 맹자의 이러한 사상은 혁신적이기도 하고 이상적이기도 해서 당대의 제후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맹자의 사상을 꺼려하는 지도자들이 종종 등장했다.³⁰⁾ 『맹자』의 혁명성은 고금을 막론하며 위정자들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맹자』가 공식적으로 금서로 지정된 기간은 특별히 없었으며, 유가의 주요 사서(四書) 중 하나로 그 권위가 꾸준히 인정되어 지식인의 필독서로 자리 잡아 왔다. 정약용과 유길준, 박은식 등에 의해 『맹자』의 다시 읽기 혹은 재해석이 시도되기도 하였다.³¹⁾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맹자』에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선후기 왕실 주도로 사서가 적극적으로 언해되어 보급된 것을 볼 때 지식인 및 지배계층이 서민들에게 유학의 기본 정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 또한 신분상승의 욕구를 기반으로 유학서의 수요증가에 일조하였기에 양반 계층의 양적 성장에 뒷받침한 서민 출신 부호 등 또한

30)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유신 전까지가 『맹자』가 금서였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명의 개국시조인 주원장은 노골적으로 맹자를 비난하면서 사당에서 그의 위패를 내리려고 시도하였다(이혜경, 『맹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 그린비, 2008, p.162).

31) 안외순, 「맹자의 왕도정치론 - 조화와 공존의 정치사상-」, 『동방학』 제8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2, p.249.

『맹자』의 주요 내용을 접해보았을 것이다.

맹자가 주장한 왕도정치론은 패도정치가 자행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진단에서 비롯되었다. 패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왕도를 행할 자격을 지닌 군주의 존재가 절실히 요청된다. 군자의 품모를 가진 이가 군주로 선택된 이후에는 왕도정치를 실현할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왕도정치가 실현된 이상적 사회의 전망을 제시해주어 군주가 꾸준히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장에서는 『맹자』의 왕도정치론을 ‘당대 패도정치의 실상, 왕도를 실행할 군주의 자격, 왕도 실현의 방법과 이상향’의 순서로 제시하여, 이를 III장 작품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1. 패도의 실상: 전쟁으로 인해 썩어문드러져 가는 백성들

「공손추」 상 편에서 맹자는 왕도와 패도의 정의를 직접 설명한다. “힘으로 정치를 하면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정치이며, 이는 반드시 강대한 국력에 의지해야 한다. 덕으로 인자한 정치를 펴는 것이 왕도정치인데, 이는 강대한 국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힘으로 복종시키는 경우는 단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요, 덕으로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다.”³²⁾라고 하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정치가 왕도정치임을 역설하였다.

맹자는 “어진 왕이 어진 정치를 펴지 않은 적이 요즘처럼 오래 된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에 시달린 것이 지금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³³⁾라며 당대를 비판적으로 진단한다. 그는 양혜왕의 경우를 예로 들어

32) 「公孫丑」上 3, “以力假仁者霸 霸必有大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以力服人者, 非心服也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如七十子之服孔子也”.

33) 「公孫丑」上 1, “且王者之不作, 未有疏於此時者也. 民之憔悴於虐政, 未有甚於此時者也”.

당시의 상황이 왕이 ‘백성을 썩어 문드러지게 할 정도’로 싸움터로 내모는 비참한 상황이라 판단한다.³⁴⁾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주지 않고, 전쟁터로 내몰기만 하는 패자로서의 왕들을 비판한 것이다.

패도는 본성인 인의(仁義)가 아닌, 군주의 사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욕심으로 자제까지 전쟁에서 희생시킨 양혜왕을 비판하면서,³⁵⁾ 인의를 갖춘 왕은 패자(霸者)를 정벌하여 천하의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 길러내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천하는 저절로 그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은을 정벌한 주 무왕의 사례³⁶⁾를 들어 결국 인(仁)한 군자가 천하를 얻음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이다. 농민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천자가 된다.”³⁷⁾고 하였다. 군주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것보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였다.

2. 군주의 자격: 천하에 두루 실현할 인(仁)을 지닌 군자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란 백성을 위한 정치이며, 이는 군주의 사욕이 아닌 인간의 본성인 ‘인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34) 「盡心」下 1, “梁惠王, 以土地之故, 糜爛其民而戰之, 大敗.” 여기서 “糜爛(미란)은 ‘썩거나 헐어 문드러짐’이라는 뜻이다.

35) 「盡心」下 1, “將復之, 恐不能勝故, 驅其所愛子弟, 以殉之, 是之謂以其所不愛, 及其所愛也”.

36) 무왕이 은을 정벌할 때에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 이 백성들을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자 마치 항복하는 짐승이 뿔을 떨구듯이 머리를 조아렸다고 한다(「盡心」下 1, “武王之伐殷也…王曰, 無畏, 寧爾也, 非敵百姓也. 若崩厥角, 稽首.”).

37) 「盡心」下 14,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 得乎丘民, 而爲天子.”.

본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손추」 상 편에 언급되어 있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옛날 선 왕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정(仁政)을 행하셨다. 이와 같이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³⁸⁾

사람은 누구나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즉 남에게 차마 어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치로 확장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천하를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 같이 쉽다. 또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³⁹⁾ 이 네 가지는 사람이 사지(四肢)를 갖고 있듯이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본성의 정도는 제각기 다르며, 환경에 의해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⁴⁰⁾ 무엇보다도 본성은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꾸준히 보존하고 힘써 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맹자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바는 조그만 차이인데,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내다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⁴¹⁾라 하였다. 실상 이러한 이는 매우 드물고 귀하지만, 이러한 사람만

38) 「公孫丑」上 6,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

39) 「公孫丑」上 6,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猶其有四體也.”

40) 맹자는 “왕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아무리 쉽게 잘 자라는 생물이 있더라도 하루는 햇볕을 쬐여 주고 열흘은 춥게 한다면 제대로 자랄 생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물러난 뒤에 임금의 마음을 차갑게 하는 자들이 계속 이르니, 왕에게 선한 양심의 싹이 있다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본성 발현에 있어 환경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告子」上 9, “無或乎王之不智也. 雖有天下易生之物也, 一日暴之, 十日寒之, 未有能生者也…吾退而寒之者至矣, 吾如有萌焉, 何哉.”).

41) 「離婁」下 19,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이 많은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필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 “사람이 지혜로운 덕과 뛰어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은 항상 고난과 우환을 겪고 그것을 극복 하였기 때문이다.”⁴²⁾라 한다. 군자는 시련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존재를 천하에 드러낸다. 이렇게 군자는 “곤궁한 상황에서는 홀로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며, 출세하게 되면 천하 사람들을 두루 선하게 한다.”⁴³⁾

군자는 본성을 보존하고 발현하는 데에 힘쓰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 이야말로 온 백성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다. 군자는 본성을 발현하는 과정에 있어 환난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성의 보존·발현을 통해 시련을 이겨내어, 세상을 이롭게 한다.

3. 왕도 실현과 이상향의 완성

이러한 군자가 위정자가 된다면 그는 힘써 인의예지를 실현할 것이므로, 백성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그와 같은 이가 당대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왕도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왕들이 이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맹자를 존경한 당대의 여러 왕들은 그에게 ‘인의에 입각한 정치를 하는 방법’을 물었다. 맹자는 제선왕(齊宣王)과의 대화를 통해⁴⁴⁾ 군주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음을 백성이 알아

42) 「盡心」上 18, “人之有德慧術知者, 恒存乎疾疢.”

43) 「盡心」下 33, “君子, 行法, 以俟命而已矣.”

44) 「양혜왕」상 편에는 ‘과인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제선왕이 등장한다. 맹자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왕이 제사에 쓸 소가 불쌍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긴 일이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소를 보고 느낀 그 측은한 마음을 백성에게로 발전시키면 된다.’고 말해 준다(「梁惠王」上 7, “臣聞之胡斲, 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牛何之, 對曰, 將以饗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觶觶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饗鍾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有諸. … 詩云,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舉斯心, 加諸彼而已.”).

주는 것, 즉 측은지심에 기반한 군주와 백성의 관계 구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왕도정치의 기본이라 주장했다.

왕도를 구축했거나, 이를 노력하는 이는 패도를 축출해야 할 의무 또한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맹자는 “무왕이 한 번 크게 화를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히 하였음”⁴⁵⁾과 “연나라 백성은 밥과 술을 담아와 (자신들을 정벌하러 온) 왕의 군대를 환영”⁴⁶⁾했던 사실과, “탕왕이 정벌할 때 마치 가뭄에 먹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듯 백성들이 그를 갈망”⁴⁷⁾하였던 사례를 들어 패도 축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패도를 축출하였다면 백성들의 항산과 항심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항산은 일종의 백성들의 생계라 할 수 있다. 「등문공」 상 편에서는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기본적인 상황이 있으니, 항산(恒産), 즉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항심(恒心), 즉 일정한 도덕관념과 행위준칙이 있으며, 항산이 없는 사람은 항심이 없습니다. 만일 항심이 없다면, 행실이 방탕하며 편벽되고 간사, 사치하여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기다린 연후에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그물을 쳐서 기다렸다가 잡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⁴⁸⁾라 하였다. 항산의 정도로써 맹자는 「양혜왕」 상 편에서 “백성의 산업을 제정할 적에는 반드시 우러러 부모를 섬기는 데 족하게 하고 … 그런 후에야 백성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⁴⁹⁾라

45) 「梁惠王」下 3, “一人衡行於天下, 武王恥之, 此武王之勇也, 而武王, 亦一怒而安天下之民.”.

46) 「梁惠王」下 10, “以萬乘之國, 伐萬乘之國, 簞食壺漿, 以迎王師, 豈有他哉.”.

47) 「梁惠王」下 11, “湯一征自葛始, 民望之, 若大旱之望雲霓也.”.

48) 「滕文公」上 3, “民之爲道也,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49) 「梁惠王」上 7, “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하였고,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 후회 없도록 하는 수준”⁵⁰⁾이 되어야 비로소 향산이 보장된 사회라 본다.

그러나 맹자가 말하는 이상 사회의 최종 목적은 향산을 통한 향심의 보장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있으나 이의 발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백성들의 사단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주는 것이 군주의 의무이다. 예부터 중국 고대 국가는 학교를 세워 백성을 가르쳐 인륜도덕을 밝히는 일을 해 왔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도리를 알게 되어 단결한다는 것이다.⁵¹⁾ 이러한 선교(善教)로서 군주는 진정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된다.

왕도정치의 절차로 군주가 가진 측은지심의 확충, 패도의 축출, 향산과 향심의 보장이라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의 선후관계는 다를 수 있고, 또 단계별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절차를 위해서는 군주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 군주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야말로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등문공」 상 편에서 말하는 이상사회의 구체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후적이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오곡을 가꾸게 하여,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되었다.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입으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짐승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순 임금인 이를 걱정하시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백성들에게 인륜을 가르치도록 하셨으니, 부자간에는 사랑이,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부부간에는 분별이,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50) 「梁惠王」上 3,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51) 「滕文公」上 3, “設爲庠序學校, 以教之, 庠者養也, 校者教也, 序者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것이다. 요 임금께서 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생하는 자는 위로하고, 오려하는 자는 오게 하고, 간사한 자는 바로잡아 주고, 굽은 자는 곧게 해 주고, 부축하여 서게 하고, 도와주어 선을 행하게 함으로써 잃었던 본성을 되찾게 하고, 경각시키며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 하셨다.⁵²⁾

간사한 자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바로잡아 주는 것과 스스로의 본성을 되찾아 주는 것은, 베풀어주어야 할 ‘은혜’라 표현되어 있으나 사실상 위정자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맹자가 원하는 세상은 공자와 마찬가지로 오류가 실현된 공명정대한 세상이다. 이를 위해 군주는 항상 먼저 술선수범하여 자신의 본성을 꾸준히 닦아 내어야 한다.⁵³⁾ 군주도 백성도 모두 그렇게 노력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존중받는 이상적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Ⅲ. 작품 속 왕도정치의 형상화 양상

판소리게 소설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구비문학적 특성으로서 단순히 읊문체이거나 구어적인 외적·표현적 특성 뿐

52) 「藤文公」上 4, “后稷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而民人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放勳曰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 聖人之憂民, 如此而暇耕乎.”

53) 윤대식은 “도덕적 완성자인 군주는 자신의 도덕본성에 순응하기에 신민의 생존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면서 “맹자의 왕도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일치의 모습이 되려면 끊임없이 인성론적 전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윤대식, 「맹자의 왕도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의 기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5, p.30).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설화 특히 민담의 구조와 유사하다. 설화를 바탕으로 전승되어 조선후기 소설로 정착되었기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세 작품은 크게 미친한 주인공의 ‘육망-시련-성취’의 구조에 부합하며⁵⁴⁾ 주요인물을 군자와 같은 인물이라 한다면 맹자의 왕도정치론을 체계화한 ‘군자의 본성 보존, 패도극복, 왕도성취’와도 서사구조가 부합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세 작품을 왕도정치의 형상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세 작품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완판 71장본 <심청전>에서는 군자의 자질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여, 본성 발현을 통해 패도를 극복하고, 왕도 실현을 돕거나 이를 증명하는 흐름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완판 21장본 <퇴별가>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왕도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본장에서는 군자의 품모를 지닌 주인공의 등장, 패도의 극복, 왕도의 실현을 큰 과정으로 보며 각각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왕도정치를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군자의 품모를 지닌 서민 주인공의 등장

흔히 ‘춘향은 열녀, 심청은 효녀’라는 인상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한 남자만 오매불망 바라보는 춘향’,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심청’이기에 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한 개인이 이를 수 있는 인의예지의 지극함을 작품 속에서 다채롭게 표출하며, 그들의 미덕은 한 가정을 넘어 세상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춘향과 심청은 작중 인물 혹은 서술자에 의해 ‘여중군자(女中君

54) 정보배, 「완판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기대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2018, pp.16-18.

子)’라 칭해진다.⁵⁵⁾

- ① 춘향이는 도도하야 기싱 구실 마다하고 … 금천하지절식이요 만고여중군
자오니 황공하운 말삼으로 초리하기 어렵니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
절가> 9장 후면)
- ② 세월이 여류하야 십오 세의 당하더니 얼골리 추월갓고 효형이 턱기하고
동정이 안온하야 인사가 비범하니 천싱녀질리라 가라쳐 힝홀손야 녀중의
군자요 새중의 봉황이라 (13장 후면~14장 전면)

①, ②와 같이 일개 퇴기의 딸, 늙은 맹인이 딸을 세상에서 보기 드문 ‘군자’라 칭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미친한 서민들도 세상을 품는 인(仁)을 지닌 군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작품 속에서 다방면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발현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 ① 너가 지금 시사가 안이여든 여림 사람을 호리척거로 부를 이도 업고 부른
덕도 갈 이도 업다 (11장 전면)
- ② 도련입은 귀공자요, 손녀는 천첩이라, 한번 탁정한 연후의 인하야 바리시
면 일편단심 이 너 마음 독숙공방 홀노 누워 우는 하는 이 너 신세 너 안이
면 뉘가 길고 (13장 전면)
- ③ 방중을 둘러보며 벽상을 살펴보니 … 학하난 겨집 아히가 … 묘선의 유명
한 명필 글시 붓쳐잇고 … 일편단심 일부중사하려 하고 글 한슈를 지어
척상 우의 붓쳐스되 (21장 전면~22장 전면)
- ④ 또 심청이는 … 얼골리 국식이요 인사가 민첩하고 효형이 출천하고 소견이
탁월하고 인자하미 기린이라 부친의 조석 공양과 모친의 제사를 의법으로

55) 고소설에서 여주인공을 ‘여중군자’라 지칭함은 일종의 상투적 표현이다. 그러나 <춘향전>, <심청전> 방각본 계열에서는 경판, 안성판에 비해 완판의 가장 많은 분량의 이본만이 이러한 ‘여중군자’라는 표현을 취하고 있고, 이후 전개에서 인물의 언행을 통해 주인공의 군자적 면모가 다각도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할 줄을 아니 (완판 <심청전> 71장본 11장 후면~12장 전면)

①, ②의 장면에서 춘향의 ‘의(義)’와 ‘예(禮)’가 특히 부각된다. ‘여림 사람을 호리척거로 부를’ 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예’가 아니라는 강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또한 춘향의 ‘일부종사’하고자 하는 마음인 ‘의’의 실현이다. 속신하여 기생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춘향은 비록 퇴기의 딸이어도 명백한 여염집 여자이다. 그러므로 한번 타당한 후 버리는 일시적 만남은 ‘예’에 맞지 않아 부끄러운 일이다. 춘향은 꾸준한 독서와 수양을 통해 몽룡과의 만남에서 ‘지(智)’를 발현하여 여염집 여자로서 일부종사해야 하는 도리를 말하였다. 또한 춘향은 평소 본성을 힘써 보존해 왔다.⁵⁶⁾ 이는 ③과 같이 춘향의 거처를 둘러보는 몽룡의 시선을 통해 증명된다.⁵⁷⁾ 심청의 경우 ④의 ‘인자함이 기린’이라는 평에서 그 ‘인(仁)’을 알 수 있고, ‘부친의 조석 공양과 모친의 제사를 의법으로’ 할 줄을 안다는 면에서 효행을 ‘예(禮)’에 알맞게 실천하는 인물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예’는 이를 아는 ‘지(智)’와 연결된다.

이렇듯 춘향은 작품 초반부에 ‘의’가 강조된다. 그녀의 인(仁)은 작품 초반에 부각되지 않는다. 몽룡과 맺어져 사랑을 나누지만 그것은 욕정에 가깝다. 그녀의 진정한 ‘인’은 그녀가 처한 위기의 장면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56) 경판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춘향은 몽룡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며, 대신 글로서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자 한다(경판 30장본 <춘향전> 4장 후면~5장 전면).

57) 장순희,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한 고전소설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3, pp.91-92.

- ① 마소 어만이 도련임 너머 조르지 마소 … 이번은 아마도 이별할 박그 슈가 업네 이왕의 이별리 될 바는 가시난 도련임을 왜 조르릿가만은 … 어만이 건는방으로 가옵소서 (41장 후면)
- ② 도련임이 보시며는 칭칭시하의 엇지할 줄 몰나 심사 울적하야 병이 되면 근들 안이 훼손이요 (60장 후면)
- ③ 나 입던 비단장옷 봉장 안의 드러쓰니 … 용장 봉장 썩다지를 되는디로 팔러다가 별찬 진지 디접하오 나 죽은 후의라도 나 업다 말으시고 날 본다 시 섬기소서 (79장 전면)

춘향은 몽룡과의 이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모친인 월매를 달랜다. 일시적 만남은 결코 안 된다던 매서운 춘향과 상반된 모습이다. 몽룡과 언약한 이후,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몽룡을 지아비로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모진 매를 맞고 하옥되자 이 사실을 몽룡에게 알리겠다는 월매를 말리면서, 그로 인해 ‘심사 울적하야 병’이 나면 그것이야 말로 훼손이라 말한다. 거지 행색으로 온 몽룡을 자신의 재물을 팔아 보필해 달라고 모친에게 부탁한다. 이는 순종적인 일개 열녀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인들을 생각하는 비범한 여인이자 군자 춘향인 것이다.⁵⁸⁾

심청의 경우 효심을 통해 인(仁)의 발현이 두드러진다.⁵⁹⁾ 심청 역시 그 저 범상한 효녀는 아니다. 편부에 맹인인 늙은 부친 아래에서 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예(禮)를 다 한다.

- ① 너 나히 칠팔 세라 싱아옥아 부모은덕 이제 봉형 못흐면 일후 불형흐신 날의 잇통흔들 갑사오릿가 … 부모를 봉양흐고 자식의 효도 맞난 게 천리의 셋셋흐고 인사의 당연흐니 (완판 71장본 <심청전> 11장 전면~13장

58) 정보배, 「판소리게 소설의 군자·보살형 인물을 통한 조선후기 소설 독자의 가치관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제18집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pp.159-160.

59) 정보배, 위의 논문, 2019, p.161.

후면)

- ② 아버지 걱정 마르시고 진지나 잡수시오 후회하면 진심이 못되오니다 …
삼백 석을 아무조록 준비하여 몽운사로 올리리다 (20장 후면)
- ③ 아버 무자싱신 삼십 안의 안팅하야 시물을 못하오니 아버 허물을 닌 몸으
로 디신하옵고 아버 눈을 발켜 주옵소서 (21장 전면)

혼자서 추운 겨울에 구걸을 하겠다는 칠, 팔세 여아 심청을 아버는 말리지만, 예부터 내려오는 인간된 도리가 효임을 들어 부친을 설득한다. 게다가 삼백 석 시주를 덜컥 하고 돌아 온 심봉사에게 한 마디의 원망도 없이 위로한다.⁶⁰⁾ 이후 ‘아버 허물을 닌 몸으로 디신’하기를 비는 심청은 이미 아버지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효녀인 심청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만으로도 세상 전체로 확장될 큰 인(仁)을 품은 인물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또한 그녀는 의롭기까지 하다.

- ① 닌가 만일 업거디면 우리 부친 나문 히를 맞칠 기리 업사오며 … 닌 몸이
맞도록 기리 모시려 하옵난니다 (15장 후면)
- ② 쏘흔 위친하여 공을 빌 양이면 엇지 남의 무명식흔 죄물을 빌려오며 …
사름의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흔 후의 다시금 비약하오면 소인의 간장
이라 (27장 후면)

그녀는 자신의 수양딸이 되면 호강하리라는 장승상 부인의 제의를 거절한다. 이는 아버에 대한 ‘인’의 발현이기도 하나, 부친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서 ‘의(義)’와 ‘예(禮)’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후 삼백

60) 경판 24장본 심청전의 경우 ‘빅단 위로하느 진실노 난쳐흔 지라(경판 24장본 <심청전>, 3장 전면~후면)라 하여 아버를 위로하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심청의 면모를 보인다.

석을 대신 갇아준다는 장승상 부인의 제의 또한 거절하며, 남이 주는 명분 없는 제물로 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약속을 정흔 후의 다시 금 비약호오면 소인의 간장’이라 말한다. 죽음 앞에서도 타인과의 약속이나 명분 없는 재물을 삼가는 군자의 의(義)를 보여주고 있다.⁶¹⁾

맹자의 왕도정치론에 입각하여 작품을 분석할 때 춘향과 심청은 군자의 풍모를 갖춘 서민 주인공으로서 왕도실현을 뒷받침할 주요 인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장차 이들의 활약으로 왕도정치가 실현되거나 증명될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

2. 본성 발현을 통한 패도의 극복

맹자는 패도란 무력으로 ‘인을 가장한’ 정치를 행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따라서 작품 속 군자의 풍모를 지닌 주인공이 이러한 패도에 대항하여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발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번사또가 부임하여 패도를 행하지만, 춘향은 굴하지 않고 맨몸으로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① 춘향이도 그리 알고 수절호여 잇쌌니다 사또 분을 너여 이 놈 무식한 상놈
인들 그게 엇더한 양반이라고 엄부시하요 … 만일 춘향을 시각 지체하다가
는 공형 이할 각청 두목을 일병 티가할 거시니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
절가> 50장 후면~51장 후면)
- ② 춘효열여 상하 잇소 … 유부첩탈 하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 사또 기가
막켜 엇지 분하시던지 … 이연 자바 너리라 호령하니 … 춘형이는 제절노
서름 제워 마지면서 우난디 (54장 전면~57장 전면)

61) 정보배, 앞의 논문, 2019, p.162.

변사또는 돌보아야 할 백성인 춘향을 사육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며 억압한다. 치자(治者)로 왔건만 올바른 본성 발현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욕정에 사로잡혀 당장 춘향을 대령하라 한다. 춘향이 수절한다 하자, 자신의 욕심을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 없이 더욱 화를 내며 신분 차별 의식을 앞세운다. 이는 백성의 원수이다. 춘향은 의연이 항거하며, ‘츄효열여 상하 잇소’라 반문하며 변사또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유부겁탈’이라 췌기를 박는다.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자⁶²⁾ 더욱 화를 내며 곤장을 치고 하옥하는 등, 춘향의 정당한 항거를 힘으로 제압하는 변사또의 정치는 전형적인 패도정치이다.⁶³⁾

앞서 군자는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본성을 다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였다. 춘향 역시 이와 같은 학정에도 자신의 본성인 ‘의’를 극대화한다. 패도에 맨몸으로 항거하는 춘향의 모습에 민심 또한 요동친다. 춘향을 통해 백성들이 불합리한 패도의 실상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 ① 업졌던 형방 퇴인 고기 드러 눈물 쫓고 미질하든 저 사령도 눈물 쫓고 도라
서며 사람으 자식은 못하건네 좌우의 구경하난 사람과 거헿헿는 관속드리
눈물 쫓고 도라서며 … 춘향 정절리 모지도다 출천열여도다 남녀노소 업시
서로 낙누하며 도라설 계 (59장 전면~후면)

62) 이는 양반들이 신봉하는 유교의 논리로서 집권층의 이중적 면모와 허위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김병권은 이에 대해 춘향이 “가치체계의 가장 핵심 요소에 근거하여” 지배층의 억압 의도와 허위를 드러내었고, “유학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데는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 피지배층이 더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김병권,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 -성춘향과 변학도의 대화 분석-』, 『한국문학논총』 제20집, 한국문화회, 1997, pp.221-226).

63) 경판 <춘향전> 30장본 16장 전면에서는 같은 부분에서 남원 한량들을 등장시켜 춘향을 부축하며 극적 긴장을 완화시킨다.

- ② 지금 춘향이를 수청 아니든다 하고 형장맛고 갖쳐스니 창가의 그런 열여 세상의 드문지라 (72장 전면)
- ③ 썰늬하는 여인드른 계집아히 석겨 안저 야야 웨야 익고 익고 불상터라 춘향이 불상터라 모지더라 모지더라 우리 골 사또가 모지더라 절기 놉푼 춘향을 우렁겁탈하러 하들 철석갓튼 춘향 마음 죽난 거슬 세아릴가 (74장 전면)

매질하는 이도 ‘사람으 자식은 못하건네’라 하고 빨래하는 아낙들까지도 ‘우리 골 사또가 모지더라.’고 말한다. 춘향의 처지에 눈물 흘리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그들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성들이 춘향의 불행에 공감할 수 있는 인(仁)을 발현했기 때문이다.

격렬한 춘향의 항거는 임금의 대리자로 온 몽룡이 남원에서 패도를 몰아내고 왕도를 다시 실현하는 데에 든든한 발판이 된다.

- ① 금준미주는 천인혈리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축누낙시밀누낙이요/ 가성고쳐원성고라. (81장 후면~82장 전면)
- ② 본관은 봉고파직이요 사티문의 방뱃치고 옥형이 불너 분부하되 네 골 옥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죄 후에 무죄자 방송할식 (83장 후면)
- ③ 어사또 남원 공사 닥근 후의 춘향 모여와 상단이를 서울노 치형할 계 위의 찰난흔히 세상 사람덜리 누가 안이 칭찬하랴 (84장 전면)

①의 칠언절구는 패도에 신음하는 백성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매우 유명하다. 몽룡은 번사또를 파직시키고 억울한 이를 모두 풀어준다. 장한 열행으로 고을 전체를 울고 웃게 만든 춘향은 모두의 축복 속에 서울로 행하고, 이후 정렬부인으로 봉해지며 신분 상승을 이룬다. 춘향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이며, 춘향의 행복은 백성의 행복이다. 춘향의 성품과 삶의 질

곡, 그리고 성취는 민중의 삶의 상징이며, 이러한 세상의 도래에 대한 강한 회구의 표현이다.

<심청전>에서는 패도를 자행하는 위정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맹인아버와 그 딸의 비참한 가난은 향산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모습이며, 이는 왕도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한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밥벌너 나설 제 … 보선 업시 밭을 벗고 … 엄동설흔 모진 날의 차운
조를 모르고 … 익근이 비난 말리 모친은 세상 바리시고 우리 부친 눈 어두
워 압 못 보신 줄 뉘 모르시릿가 십시일반이오니 밥 혼 술 덜 잡수시고
주시면 눈 어두은 너의 부친 시장을 면흐것소 (12장 후면~13장 전면)

7세 여아가 맹인 아버를 위해 엄동설한에 헐벗고 밥을 빌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았다면 맹자는 단호하게 왕도가 실현되지 않은 세상이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왕도의 빈자리를 도화동의 이웃들이 메꾸어 준다.

- ① 남녀노소 업시 묘와 낙누하며 흐는 말리 … 우리 동너 빅여 호라 십시일반으로 감장이나 하여 주시 (8장 후면)
- ② 동영젓을 어더 먹일 제 … 뉘 안이 먹여주리 … 쏘 육칠 월 지심 미난녀인 수일참 차져 가서 익근하게 어더 먹이고 … 옛던 부인은 달너다가 쏘쓰시 먹여주며 후 날도 차져오라 하고 (10장 후면~11장 전면)
- ③ 도화동 사름드리 심소제의 지극한 효성으로 물의 썩져 죽으오물 불상이여겨 타루비를 세우고 … 동중 사름드리 심팅인의 전곡을 착실리 취리하여 성세가 히마닥 늘리가니 (42장 후면~43장 전면)

①, ②, ③에서 도화동 주민들은 꼭써 부인의 장례를 십시일반하여 치러 주고, 갓난아이 심청을 동냥젓으로 키우며, 심청이 떠난 후 그녀를 기리는 타루비를 세우고 홀로 남은 심봉사를 가족처럼 돌보아 준다. 이는 위정자

가 힘써 실현하는 왕도가 미치지 못할 때 백성들의 힘으로 왕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백성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비범한 군자로서의 심청은 대효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인을 극대화하여 발현하며 바다에 뛰어든다. 맹인 부모를 둔 여아가 사람된 도리로 힘써 효행을 다 하다가도, 결국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검푸른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끝으로 한다. 이는 백성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하고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써보리라 하되 가세 철빈하여 판출할 기리 전이 업서 닉 몸 팔여하니 (21장 후면)
- ② 익고 익고, 아버지 나는 죽소 비전의 혼 발리 짓밟으며 썩구로 풍덩 썩저노니, 횡화는 풍낭을 쫓고 명월은 희문의 잠기니 차소위 묘창히지 일속이라. (36장 후면~37장 전면)

맹자가 말한 최소한의 향산의 조건인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함’은 심청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심청의 죽음은 천지신명까지도 감동시킨다. 비범한 본성의 보존과 발현으로 비참한 백성의 삶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 초자연적 존재들의 도움으로 환생한 심청은, 황후가 된 후 맹인 아버지와 재회하고자 묘안을 떠올린다.

빅성 중의 불상헌 비난 환과고독 사궁이요 그 중의 불상헌계 병신이오 나 병신 중의 더욱 밍인이오니 천헌 밍인을 모도 묘와 잔치를 흡소셔 저의더리 천지 일월성신이며 후빅 장단과 부모 처자를 보와도 보지 못하여 원헌 두물 푸러 주옵소셔 (50장 후면~51장 전면)

이는 황후로서가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실한 백성의 말이다.

왕도의 덕을 입지 못했던 설움을 기억하며, 왕도를 실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맹인의 여식이었던 시절부터 세상을 품을 인(仁)을 갖추고 있었기에 왕도 실현을 뒷받침할 주요 인물로서의 자격이 있다. 가장 비참한 지경에서든, 황후가 되어서든 사단의 본성을 변함 없이 발현해내는 모습 역시 전형적인 군자의 됴됨이를 보여준다.

춘향과 심청은 비범한 본성을 발현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하여 널리 왕도 정치의 필요성, 당위성을 알린다. 이들의 외침은 나라 전체와 초자연적 존재들에게까지 닿아 왕도 실현의 가능성을 더욱 높아지게 한다.

3. 서민의 힘으로 실현한 왕도의 이상(理想)

심청의 묘안으로 모이게 된 전국 맹인들은 심봉사가 심청과 재회하고, 그에 눈을 뜨자 덩달아 모두 눈을 뜨는 이적을 보인다.

심봉사 짐작 놀녀여, 이게 윈 말리인야 헛더니 엇지 하 반갑던지 뜻박기 두 눈이 갈무 써러지난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달 발거스니, 만좌 밍닌드리 심봉스 눈 쓰난 소리의 일시의 눈더리 허번덕 짹짹 간치식기 밥머기난 소리 갖더니, 못 소경이 천지 명낭하고 집안의 잇난 소경 계집 소경도 눈이 다 발고 비안의 밍인 비 밧기 밍인 반소경 청밍간이식지 몰수이 다 눈이 발가스니 (64장 전면)

앞서 ‘빅성 중의 불상흔 비난 환과고독 사궁이요 그 중의 불상헝계 병신 이오나 병신 중의 더욱 밍인이오니’라는 심황후의 말은 당시 왕도의 수혜를 가장 받기 어려운 이들이 맹인과 같은 신체의 장애를 지닌 이들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장면은 가장 그늘졌던 곳까지 왕도가 골고루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또한 가장 불쌍한 백성들이 광명

을 되찾게 함으로써, 그들의 향산과 향심 또한 보장해줄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다.⁶⁴⁾

한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왕이 춘향을 정렬부인으로 봉하면서 춘향이 신분을 상승하는 과격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춘향전의 이본들 중에서도 신분을 상승하는 결말은 흔치 않다. 이는 퇴기의 딸일지라도 본성이 훌륭하게 실현되면, 신분에 상관없이 이를 높이 인정하는 사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춘향은 퇴기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삶에도 생계 곤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또한 양반 못지않은 교양을 쌓아 본성을 힘써 보존할 수 있었다. 퇴기의 딸도 인의예지를 보존하고 발현해내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회가 왕도정치를 통해 훌륭한 본성을 발현할 백성을 길러낼 수 있는 사회임을 의미함이 아닐까 한다.⁶⁵⁾

정리하면, <열녀춘향수절가>에는 왕도가 실현된 사회를 춘향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⁶⁾ 반면 <심청전>은 왕도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가지만 그 빛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한 사회이다. 그러나, 그 사회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기적적으로 본성을 보존한 심청이 황후가 되어, 왕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4) 경판 <심청전>의 모든 계열에서는 이와 같이 결말 부분에 모든 맹인들이 눈을 뜨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65) 김병권은 완판 <춘향전>이 29장본, 33장본, 84장본으로 제작되면서 작품 초 시간적 배경을 '요순시대, 국태민안, 충신이 만조정, 여림의 열녀' 등으로 많이 부연함으로써 "왕의 덕화가 백성에 이르기까지 퍼지도록 민정을 선치"하고 있으며 "효자와 열녀가 집집마다 있다는 것은 백성이 교화되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김병권,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형성연구」, 『퇴계학논총』 제14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pp.202-205).

66) 춘향의 신분상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왕의 덕화가 변학도에 의해서 기생이라고 강요되었던 성춘향과 변학도에게 항거한 백성들에게까지 이르렀다는 뜻을 포함한다."라 밝혔다(김병권, 앞의 논문, 2008, p.213).

4. 서민의 각성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염원

완판 21장본 <퇴별가>의 주요 인물들은 하나같이 사단(四端)이 전반적으로 발현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다.

- ① 툽기 간을 못 먹으면 죽을 빗기 슈업신니 엇던 신히 툽기 잡아 짐의 병을 구하리요 (완판 21장본 <퇴별가>, 2장 전면)
- ② 우연이 병중하여 퇴간이 안니면은 드는 약이 업는 고로 … 죠곰도 셔워 말고 빅 너미러 칼버드라 (16장 후면)
- ③ 만좌을 다 보와도 꾀왕지보는 비웅비표라 선싱 흐느낀이기로 … 늑을 짚어 그스이다 (12장 전면~후면)
- ④ 텃간 쥬입하단 마리 스키에도 업스웁고 이치의도 부당하니 …비 가르고 보옵소서 (17장 후면~18장 전면)
- ⑤ 근본 성정 무겅지 못흔 거시 … 천만 뜻밖 뉘와 와서 싱원이라 존충하니 죠와 아쥬 못견디여 (11장 전면~후면)
- ⑥ 실업슨 툽기 쇼견 제ᄃ 쥬부 도로기로 살림퐁월 즈랑홀 제, 터업난 거짓말을 닐슈 먹듯 흐느구느. (12장 후면~13장 전면)

용왕은 풍류를 즐기다가 병이 났음에도 거듭 욕심을 부려 무고한 생명을 해치려 한다. 통치자로서 본성을 발현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흔히 충신이라 불리는 별주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왕명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충신이라 불리고 싶은 개인적 욕망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한다. 맹자는 패도를 돕는 신하 역시 천하에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별주부는 왕의 명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시비지심으로의 발현과 무고하게 희생될 토끼에 대한 측은지심으로의 발현도 보이지 않으며 수오지심 또한 없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을 행한다. 토끼 역시 별주부의 본심을 알지 못한 채, 분수를 모르고 ‘싱

원이라 존중'하는 것에 들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는 모습 또한 거짓 일색이므로 사단의 발현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⁶⁷⁾

왕과 신하, 백성 모두 이렇듯 사단이 발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⁶⁸⁾ 폐도가 횡행되는 사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용왕의 병과 육심에서 모든 갈등과 어리석음이 시작됨으로써, 결국 통치자로서의 '인'의 부족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통치자부터의 사단 발현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임을 반증한다.

맹자의 왕도정치론에 입각하여 작품을 분석할 때 춘향과 심청은 군자의 품모를 갖춘 서민 주인공으로서 왕도실현의 주체 가능성을 완벽히 갖춘 인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나 <퇴별가>의 초반 주요 인물 묘사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다. 서민 주인공인 토끼 또한 살기 위해 거짓말로 수궁을 빠져 나올 뿐이다. 춘향, 심청과 같이 비범한 본성을 발현하여 왕도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널리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퇴별가>에서는 끝내 폐도가 극복될 수 없었다. 등장인물 중 누구도 폐도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

토끼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산중 동물들 또한 서로 협력하지 않고 험뜯거나, 같은 처지인 서로를 위기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산헝기라 허난 거슨 갖튼 우리 모죽으로 … 너 잘 맞는 즙랑혀여 심슨궁국
 층암절벽 좃고 촛져 드려와셔 여괴저괴 지는 되도 너을 부쳐 질을 촛져
 굴 속의 드렸스되 가어이 물어너니 (10장 전면)

67) 내용상 같은 부분인 경판 <토생전> 2장 후면~4장 전면 토끼의 내적조건인 육심 많고 경박하며 분수를 모르는 특별한 묘사도 없으며, 토끼의 평소 욕망이라 울분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다.

68) 정보배, 앞의 논문, 2019, pp.165-170.

- ② 여의ᄃ 석 느셔며 다람이ᄃ 과동ᄃ즈 밭과 뭇토리를 마이 모와 두어신이
 가져오라 ᄃ읍소서 … 쥐도 양식 만헐 터이 ᄃ져오라 ᄃ읍소서 … 손군임
 그 식양의 스쇼흔 김싱덜은 입담 업셔 못할 터니 멧도야지 큰 즈식이 직금
 즈바 픈즈 ᄃ되 … ᄃ져오라 ᄃ읍소서 (10장 후면)

모족모임에서 사냥개는 같은 동족을 죽게 한다며 비판받는다. 게다가 산군인 호랑이의 비위를 맞추고자 여우가 쥐와 다람쥐, 멧돼지의 희생을 부추긴다. 모족모임 소집이 공동의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였음에도, 힘의 우열을 통해 결국 동족끼리 해를 입히는 꾀도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천심의 대변인이라 본 백성들조차도 최소한의 단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당대 사회를 더욱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결국 수궁과 육지 그 어느 공간도 왕도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듯하나, 결말부에서 토끼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 ① 각위기군ᄃ엿기로 십분 짐죽ᄃ여스며 만경측ᄃ 네 등으로 왕ᄃᄃ니, …
 너 쏙이 조이 조와 청열을 한ᄃ ᄃ고 스람드리 슈어ᄃᄃ ○아을 머이는다.
 네의 왕 두 눈망치 열기ᄃ 과ᄃ터라. 갓ᄃᄃ 먹어시면 병이 곳 느으리라.
 (21장 전면)
- ② 쥬부는 슈궁의 드러가셔 용왕의 퇴분 먹고 병이 느으 ᄃ신되고, 툃기는
 신션 짜라 월국으로 올ᄃᄃ셔 잇 썩ᄃᄃ지 도야오니 (21장 후면)
- ③ 벼슬 싱각 부ᄃᄃ 말고 이스 싱각 부ᄃᄃ 마소. 벼슬ᄃᄃ면 몸 위ᄃᄃ고 타관ᄃᄃ면
 천ᄃᄃ 밧ᄃ. (21장 후면)

토끼는 자신을 사지로 끌어들이 별주부에게 ‘썩 살마셔 빅소쥬 안쥬ᄃ
 음 초측 꺾어 먹을’ 만큼 분노할 만하다 하지만, 신하의 입장이었던 별주부
 를 끝내 이해한다. 또한 ‘만경측ᄃ 네 등으로 왕ᄃᄃ’한 수고도 잊지 않는다.
 생명을 앗으려 한 이들에게 똥이나마 제공하려고 하는 등 초반 이기적이고

욕심 많으며 거짓말 잘 하는 토끼의 모습과는 달라져 있다. 용왕과 별주부는 토끼 덕분에 병도 낫고, 충신이 된다.

이처럼 토끼는 용궁에 다녀 온 후로 각성된 존재로 변모하였고, 결과적으로 등장인물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토끼는 ‘벼슬하면 몸 위럽고 타관 가면 천덕 빚’이라 하며 자신의 위치와 분수에 맞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을 말한다. 용왕이든 별주부든 먼저 욕심을 버렸다면 깨달음을 얻고, 모두에게 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변화를 토끼가 가장 먼저 보여줌으로써, 맹자가 가졌던 백성의 힘이 비로소 실현될 가능성을 보이며 결말을 맺는다. <퇴별가>는 결말부에서 가장 아래 서민층이 각성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왕도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며, 앞으로 그 주체 역시 서민층이 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맹자는 “하늘은 백성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 백성들의 귀를 통해서 듣는다.”⁶⁹⁾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하늘의 뜻은 백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말이다. 『시경』이 춘추시대 백성들의 노래를 중심으로 엮은 책임에도 공자와 맹자가 중요하게 여겼듯이, 조선후기의 판소리 문학 또한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부터 전승되던 이야기가 서민층이 주도하고 전 계층이 향유한 판소리와 소설로 형상화 된 것이기에, 민중의 오랜 염원과 절실한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무엇보다도 맹자의 왕도정치가 체계적으로 홀

69) 「萬章」上 5: “太誓曰,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此之謂也.”

롭게 형상화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에서 발간된 완관 판소리계 소설인 <열녀춘향수절가>, <심청전>, <퇴별가>가 각각 왕도의 증명, 왕도의 완성, 왕도의 가능성을 그린 작품들이라 보았다. 이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들은 모두 서민으로서, 당대 민중들이 이후 도래할 시대의 왕도 실현에 그들 서민층이 주체가 될 것이라 믿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맹자가 주장했던 왕도정치는 그 연원이 오래되었지만, 현 시대의 정치 이념과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더 혁명적이다. 광범위한 방각본 유향서와 이의 언해본을 통해 왕도정치의 내용을 접한 조선후기의 서민이나 중인, 이를 알고 있던 몰락 양반들은 이와 같은 정치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강하게 열망했을 것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며 군주는 백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에 평등사상과 인간 존엄성의 희망을 보았을 것이며, 늘 미천하게 취급되었던 백성들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

『맹자』는 사서(四書) 중 하나로 오랜 시간 존송되었음에도, 그의 왕도정치론은 여태껏 완벽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 실현을 기약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왕도정치론을 꾸준히 되새기면서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상적인 사회의 도래란 그리 불가능하지만 한 일이 아닐 것이다. 조선후기에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었던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를 발견하는 것은 그간 불행한 역사로 인해 맥이 끊겼던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적 유산과 민중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일이다. 또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고도 믿는다.

【참고문헌】

1.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다가서포, 1916.

____ 『심청전』 71장본, 서계서포, 1906.

____ 『퇴별가』 21장본, 다가서포, 1898.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____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8.

____ 『<토끼전> 전집』 2, 박이정, 1998.

『孟子』

2. 논저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pp.112-176.

김병권,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 : 성춘향과 변학도의 대화분석」, 『한국문학논총』 제20집, 한국문학회, 1997, pp.219-230.

____, 「<열녀춘향수절가>의 주제형성연구」, 『퇴계학논총』 제14집,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pp.199-224.

김용현, 『조선 성리학, 지식권력의 탄생 : 조선시대 문묘 종사 논쟁 읽기』, 프로네시스, 2010. pp.24-29.

김현주, 「경관과 완판의 거리 : 판소리계 소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적 해석」, 『국어국문학』 제116집, 국어국문학회, 1996, pp.157-184.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pp.31-71.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 한국 현대 출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출판미디어, 2003, pp.35-86.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안외순, 「맹자의 왕도정치론-조화와 공존의 정치사상-」, 『동방학』 제8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2, pp.226-249.

안현주, 「조선시대 사서(四書)의 판본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pp.1-318.

유영대, 「전주대사습」, 『비교민속학』 제13집, 비교민속학회, 1996, pp.272-274.

윤대식, 「맹자의 왕도주의에 내재한 정치적 의무의 기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5, pp.7-32.

- 윤사순, 『근본원리로 살핀 한국의 유학사상』, 두양사, 2016.
- 이민희, 「근대 이행기의 문학-출판제도의 변천」, 『한국문예창작』 제10집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pp.111-139.
- 이혜경, 『맹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 그린비, 2008.
- 장순희, 「문화적 맥락 읽기를 통한 고전소설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3, pp.1-189.
-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정보배, 「완관 판소리계 소설의 독자기대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8, pp.1-147.
- _____, 「판소리계 소설의 군자 보살형 인물을 통한 조선후기 소설 독자의 가치관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제18집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9, pp.141-18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1.
-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 1』, 역사비평사, 1996.
-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Abstract

An Ideal of the Rule of Right and the Desire of the People
Embodied in the Wan-pan Pansori Novels

Jeong, Bo-ba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sori novels and the theory of the rule of right by Mencius. Among the Confucianism books that were published in the Chosun Dynasty, the democratic spirit of Mencius' the rule of right is closely tied to the demands of ordinary citizens. Among the Confucian scholarship books that were published in the Chosun Dynasty at the time, the works of Mencius stated that democratic spirit of "the rule of right" is closely aligned with the needs of ordinary people of the time.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rule of mighty" in which politics rule by force. The Wan-pan Pansori novel perfectly embodies this Mencius theory of "the rule of right". These are the stories of the people who were not good enough, but who will overcome "the rule of mighty" and grow up as a person who realizes or proves "the rule of right". People created and enjoyed Pansori novels in the contemporary era, and dreamed that Mencius theory of "the rule of right" would be realized in real life.

Key Word : Pansori Novels, Wanpan Banggakbon, Mencius, the Rule of Right,
Korean Old Novel Readers

정보배

소속 : 부산남고등학교 교사

전자우편 : bobaequeen@daum.net

이 논문은 2019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2일 게재 확정됨.